

●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 개최



과학의 달을 맞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한민국공군이 주최하고, 꿈돌이 사이언스 존 발전협의회(엑스포 과학공원, 국립중앙과학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꿈돌이랜드)가 주관한 '2008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꿈돌이 사이언스 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 처음 실시된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꿈돌이 사이언스 존 발전협의회 소속의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개최하던 행사들을 엮어 하나로 만든 것으로, 우리 연구원의 대한민국별 축제(4월)와 대전광역시·엑스포 과학공원의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8월), 그리고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의 달 행사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학생전체관측대회 등을 연계시켜 대전의 과학축제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앞서 4월 18일 밤에 열린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 전야제에서는 대전시와 감필라고 왕국의 우주동맹연극과 함께 공군 헬기의 축하비행, 불꽃놀이 등이 이어졌으며, 많은 VIP들과 국제우주연맹(IAF, International Astronautical Federation)의 제임스 짐머만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꿈돌이랜드에서 진행된 우리 연구원의 '대한민국 별 축제' 행사에서는 아스트로카와 천체망원경을 통해 달과 토성, 화성, 그리고 봄철의 별자리 등을 관측하는 천체관측과 함께 '과학강연', '도전 골든벨'이 진행되었다. 강연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채연석 박사가 들려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야기와 우리 연구원의 임흥서 박사가 진행한 소행성과 지구충돌 이야기로 진행되었다. 또한 19일에는 "5인조 밴드와 함께하는 과학강연"에 천재소년 송유근 군이 깜짝 출연하여 드림 실력을 뽐냈으며, 제16회 천체사진공모전 전시회 및 시상식이 이어졌다. 21일에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자기부상열차 개통 기념행사'를 가졌다.

● 거대망원경 GMT 관계자 방문

우리 연구원은 세계 최대 구경의 대형망원경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GMT 사업(Giant Magellan Telescope Project) 관계자를 초

청하였다. GMT 사업은 25.4m 구경의 초대형 지상 망원경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완성을 목표로 범세계적 협력을 통해 건설 중에 있다. 이번에 우리 연구원을 방문한 GMT 관계자는 GMT 사업 총괄 매니저 겸 미국 카네기 천문대의 부대장인 매트 존스(Matt Johns) 박사와 호주 스윈번 대학 슈퍼컴퓨팅 센터장이자 GMT 관련 호주 대표인 워릭 코우치(Warrick Couch) 교수이다. 존스 박사와 코우치 교수는 지난 4월 14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여 선임부장과 환담 후 대형망원경사업 그룹 및 실험실을 견학하고, 우리 연구원의 대형망원경 사업 진행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였으며, GMT와의 향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내 최대 광학망원경인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은 외국의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국내 천문계는 그동안 대형망원경에 대한 열망을 가져왔다. 국내 천문계와 함께 우리 연구원은 GMT 거대망원경 사업에 10% 지분을 참여하는 방안을 국가 R&D 사업으로 정부에 제안 중에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GMT측에 한국천문학회·광학계 및 관련 기업들의 의지를 알리고, 우리 연구원의 사업내용을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되었고, GMT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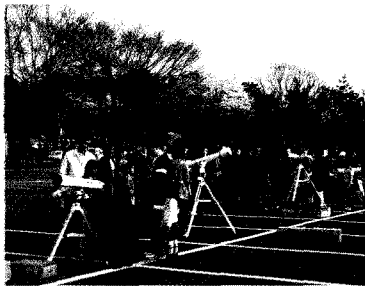
● 제4회 전국천문과학관 워크숍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제4회 전국천문과학관 및 천문관련기관 워크숍'을 강원도 영월별마로천문대에서 개최하였다. 4회째를 맞은 이번 워크숍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지방천문과학관과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천문기관 등 17



여개 기관에서 약 35명이 참가하여 '2009 세계 천문의 해'를 대비한 준비사항 공유와 함께 각 기관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천문과학관은 9개 기관이며, 국공립 수련원 및 교육과학연구원, 사설천문기관 등을 포함하여 약 60여개 기관 정도가 천문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재 건립이 추진 중인 곳과 건립이 진행 중인 곳을 포함하면 향후 100개 기관 이상이 천문시설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각 천문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운영 프로그램 교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 2008 진주 보라매 벚꽃축제 참가



우리 연구원은 지난 4월 5일 공군교육사령부가 주최한 '2008 진주 보라매 벚꽃축제'에 참가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 연구원은 공군교육사령부 내 비성공원 소공연장에서 한국 아마추어천문학회 부산지부 회원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상대로 천체 관측회와 천체사진전시회를 열었다. 태양 흑점관측과 토성 관측, 그리고 별자리 강연과 천체사진 설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천체관측이 낯설었던 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까지 행사가 진행되었다.

● 2008년 식목행사



우리 연구원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지난 4월 오후 2시에 연구원 주변과 대덕전과 조경지역에 시비·식재·청소 등의 식목행사를 하였다. 기술지원팀·지구관측연구그룹과 기숙사 입주자는 각각 소형망원경 개발동과 기숙사 현관 앞에 철쭉을 심었고, 국제천체물리센터, 천문정보센터, 기획부, 행정부는 본원 조경지역의 나무와 잔디에 거름을 주었다. 또한 연구원 주변 등산로를 정비하였다.

● 안전관리 종합상황실 개소

우리 연구원 본관건물 1층 현관로비에 있었던 당직실이 개·보수를 통해 '안전관리 종합상황실'로 새롭게 개소하였다. 지난 2007년 초 현관로비를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그동안 당직실에서 현관로비로 향한 창문이 막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야간 출입

자에 대한 육안 보안업무기능이 상실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10년 전 준공당시 시설이 노후화된 관계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연구 공간 부족으로 1층 휴게실을 사무공간으로 전용함에 따라 새로운 휴게실의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번 새롭게 개·보수된 종합상황실은 야간 보안업무기능을 물론, 휴게실의 기능 및 매월 보건대행 병원의 건강검진 및 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제20회 사이언스데이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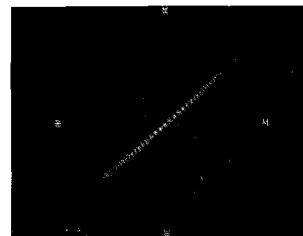


우리 연구원은 지난 4월 12일과 13일, 국립중앙과학관이 「신나는 과학체험, 사이언스데이에서 만나요!」라는 테마로 개최한 '제20회 사이언스데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이 행

사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과학기술체험 축제 한마당으로 우리 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기관 및 대전·충청지역 대학, 전국과학교사협회, 과학기술관련 동호회 및 단체 등 51개 기관이 참여하여 82개의 과학기술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우리 연구원은 태양계 중력저울, 만원권의 새겨진 천문유물 모형을 전시하였다. 사이언스데이는 2000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개최되었으며, 과학기술의 원리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 시연함으로써 참가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흥미진진하고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체험마당이다.

● '대한민국 우주에 서다' 행사 참가 및 ISS 관측시간 발표

지난 4월 8일, 서울특별시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SBS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우주에 서다' 행사가 서울 시청 앞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를 태운 소유즈 우주선 발사 한 시간 전부터 시작한 이 행사에, 우리 연구원은 중력저울 등 여러 가지 체험 전시물을 전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연구원은 이소연 씨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ISS를 관측할 수 있는 날짜별 시각과 ISS 진행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소연 씨는 지난 4월 8일 우주에 올라 11일간의 바쁜 일정과 임무를 마치고 4월 19일 '16 원정대(Expedition 16)' 우주인 2명과 함께 소유즈 우주선 TMA-11을 타고 오후 2시 20분경에 국제우주정거장을 출발하여 오후 5시 40분경 카자흐스탄 초원지대로 무사히 귀환하였다.



▶4월 13일 ISS 이동 경로